

## 장애인과 함께하는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다

### 에스에스모빌리티

에스에스모빌리티는 차량 등 모빌리티 기기의 유지와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장애인을 적극적으로 고용해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배려와 혁신으로 장애가 방해되지 않는 일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하루를 들여다봤다.

#### 장애가 방해되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

에스에스모빌리티는 사회적 기업이자 2020에 창업한 송실대 스타트업으로 송실대 경영대학 경영학부 박원준 교수가 대표를 맡고 있다. 73명의 직원 중 절반에 가까운 26명의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최근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인정받았다. 박원준 대표의 목표는 일반 기업과 차이가 없는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에스에스모빌리티는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차이 없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고용합니다. 그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돕고 성과를 인정해줘서 장애인 고용의 긍정적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에스에스모빌리티는 각각의 직원이 독립적으로 목적지로 이동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공유 차량과 키보드 등 각종 모빌리티의 세차, 수리, 수거, 재배치 등의 정비다. 장애인들이 스케줄과 컨디션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근무를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정비를 수행하기 위한 차량 등의 이동 수단도 제공한다. 직원들이 장애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데 집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직원이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매니저도 사무실에 상주하도록 해서 업무의 불편이나 의견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의 업무 수행에 불편함 없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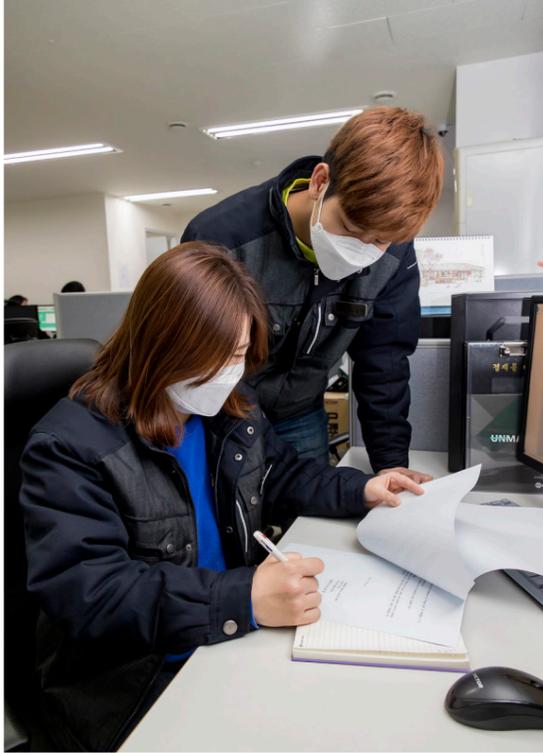
66

에스에스모빌리티는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차이 없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고용합니다. 그들의 업무 역량 향상을 돕고 성과를 인정해줘서 장애인 고용의 긍정적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99



박원준 대표이사



이형민 매니저는 일반 사무는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 직원의 소통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

### 이해하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만든다

특히 전산과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이형민 매니저는 장애인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각장애가 있는 그는 평소 사무실에 상주하며 유선과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현장의 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현장 직원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는 브리핑에서는 수어와 대화를 통해 업무 이해를 돕고 있다.

“저에게 꼭 맞는 업무를 하고 있어서 항상 즐겁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거나 업무상의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언제나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는 다른 현장 직원들과 함께 카셰어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지금은 회사를 홍보하는 영상에 직원들을 대표해서 나서는 등 조직 내에서 자리를 잡았다. 다른 동료들과도 관계가 좋다.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는 사무실에서도 동료 직원들과 소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갔다. 가끔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생겨도 묵묵히 대화가 이어지길 기다려주는 분위기가 사내에 정착되어 있었다.

“수직적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수평적인 분위기라서 일하기가 편합니다. 업무에 문제가 생겨도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항상 도움을 주고받으며 해결해나가기 때문에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에스에스모빌리티 직원들은 기기 위치로 이동 후 다양한 정비 업무를 실시한다.

###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다

이런 조직 문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는 사회적인 모범 사례로 알려지면서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지난 11월에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서 성과를 점검하기도 했다.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신산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최근에는 모빌리티 정비 외에도 배송, 배달, 운송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한정된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번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활동에 수익이 더해지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올해는 장애인 신규 직원을 30명 이상 채용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에스에스모빌리티 직원 중에는 청각장애인 스노보드 선수인 조진용 선수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 최초로 2019 발테리나 데플림픽에 출전했던 장애인 체육 선수다. 그는 현재 카셰어링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일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데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회사를 건강한 이미지로 알리기도 했다. 이런 사례가 많아 질수록 에스에스 모빌리티는 장애인이 만들어가는 회사라는 상징성을 가진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를 도움 받아야 하는 존재에서 비장애인을 돕는 존재로 바뀌어가는 에스에스모빌리티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본다.



에스에스모빌리티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모범 사업장으로 꼽힌다.

### MINI INTERVIEW



이형민 매니저(전산·행정 업무/청각장애)

현장 업무를 진행하다가 사무실로 옮겼을 때는 걱정도 했지만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를 회사를 대표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을 때는 제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살피고 소통해서 동료들 사이에 벽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역할을 다하고 서로 도와 활기찬 회사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인구직과 신규 직원들의 업무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이형민 매니저가 옆자리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늘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성격이 밝아서 항상 힘을 줍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께도 잘하고 어린 친구들에게는 자상해서 동료들의 신임이 깊습니다. 업무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어떤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가 배우는 부분이 많습니다. 중요한 전달 사항 등은 온라인 메시지로 보완하기 때문에 말로 할 때보다 오히려 업무 수행이 더욱 정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늘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김수진 매니저(인사 업무)